

자주잎 옥살리스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조수현, 김동욱[†], 노대영, 한동균, 이수민¹

인제대학교; ¹이사벨고등학교

(pedkim@inje.ac.kr[†])

현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주름개선 화장품소재 중 레티놀과 아데노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 분야의 최신 트렌드는 가급적이면 합성원료를 최소화하고 이를 천연물 특히 식물성 성분으로 대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자주잎 옥살리스 에탄올 추출물의 화장품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주잎 옥살리스 일명 사랑초라고 불리는 팽이밥속에 속하는 식물로써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써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 주로 감염성 염증, 황달성 감염, 비뇨기계 염증, 피부염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 였다.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확인 하기 위해 DPPH 활성산소 제거법을 진행하였으며, 자주잎 옥살리스 추출물은 동량의 비타민 대비 매우 뛰어난 항산화능을 확인 할수 있었다. UVA, UVB의 차단효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자주잎 옥살리스 추출물은 항산화 화장품소재와 자외선차단 소재로서 응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